



건설교통부

경의선 가좌역 공사현장 사고 복구 및 교통불편해소 대책

2007. 6. 5



건설교통부

(경의선 사고대책 상황실)

목 차

1. 사고현황	1
2. 공사구간 복구대책	2
3. 교통불편 해소대책	3

< 참고 > : 경의선 사고구간 노선도

1. 사고 현황

□ '07.6.3(일) 17:14경 경의선 복선전철화 공사구간*인 가좌~수색 공사현장의 선로지반 침하(길이 45m, 폭 30m, 깊이 35~37m)

○ 경의선 복선(일 38회 운행) 및 차량기지 입·출고선(KTX 고양차량기지 및 일반열차 수색차량기지) 등 3선 45m 유실 되어 열차운행 차질

- 공사장 인부 긴급대피, 열차운행 정지 등으로 인명피해는 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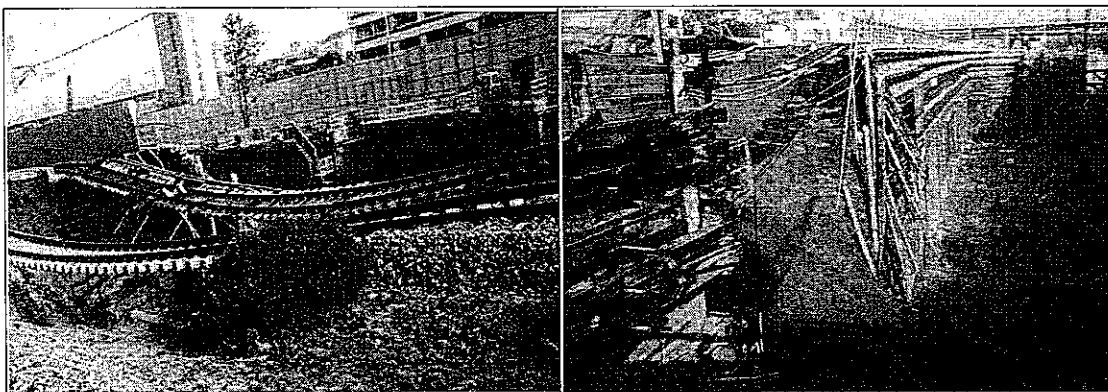
* 경의선(용산~문산) 복선전철화 공사

- 시행: 철도시설공단, 시공: 쌍용건설(주), 감리: 유신코퍼레이션
- 문산~성산간 : '09년 6월, 성산~용산간: '10년 12월 완공예정

□ 사고원인은 가설옹벽 부실관리, 열차 등 주변지역 진동, 지하수 유입에 의한 토압가중 등 여러 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

○ 정확한 원인은 앞으로 설계 적정성, 시공계획·관리현황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규명할 계획

* 6.4일 한국지반공학회 주관으로 토질·지반전문가, 구조·안전진단 전문가로 사고조사단을 구성하여 사고원인 조사중(20일 소요)



< 사고현장 모습 >

2. 공사구간 복구대책

승객편의를 위해 조속한 복구가 중요하나, 대형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완벽한 복구후 운영을 재개한다는 원칙아래 복구에 만전

- (사고수습대책본부 설치) 관련기관 합동으로 사고수습대책본부*를 설치(6.3 18:00)하여 긴급복구 대책을 추진
 - 사고현장에 철도시설공단, 철도공사, 시공사, 감리단으로 「사고수습대책본부」를 구성하여 복구 및 운행대책에 만전
 - 건설교통부에도 생활교통본부장의 총괄지휘 아래 「사고대책상황실」(실장: 광역교통기획관)을 설치하여 조기 수습을 적극 지원
- (현장복구작업) 사건발생(6.3) 즉시 덤프트럭 55대를 동원 투입하고, 익일(6.4) 05:00부터 104대, 09:00부터 120대로 대폭 증차하여 복구작업을 차질없이 수행중
 - * 6.5일 10:00 현재 74% 수준 복구(되메우기 공정을 86%)
 - 경의선 상행선은 6.6(수) 05:00까지 개통, 경의선 하행선 및 차량기지 입·출고선로는 6.6(수) 18:00까지 복구할 계획
 - * 6.4(월) 11:10 건교부장관이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안전복구 독려 및 교통불편 최소화하는 조치 마련 지시

3. 교통불편 해소대책

KTX 이용객을 위하여

- KTX 차량기지 청소원·검수원 재배치 등으로 초기에 일부 운행지연이 있었으나, 종착역 회송운행으로 정상운행 중
 - 서울·광명·용산역에서 검수·청소 이후 회차운행
 - * KTX 46편성중 4편성만 고양 차량기지에 묶여있어 운행에 큰 지장 없음
 - 열차정비·점검은 부산 차량기지에서, 청소·급수 등 여객 설비 정비는 부산·광주·목포역에서 시행
 - * 청소원 및 검수원 재배치 : 서울(4명), 용산(5명), 광명(157명)
 - * KTX 일일 운행현황(136회) : 경부선(서울역 100), 호남선(용산역 36)
 - 운행중단된 서울~행신역(고양차량기지 인근)구간 승객 수송을 위해 서울~행신역 구간 셔틀버스 운행(3대)

일반열차 이용객을 위하여

- 일반열차는 서울·용산역에서 회차 운행하고 있으나, 검수 및 대피선 부족 등으로 열차운행 일부 지연
 - 수색차량기지에 10편성(새마을 2, 무궁화 8)의 차량만이 체류중으로 차량운행상에 큰 문제가 없으나, 서울·용산역의 검수정비 능력 한계로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

- 추가 운행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**16개 일반열차를 통합 운영**(6.5일은 27개 일반열차를 통합운영 예정)하는 등 열차지연 최소화에 만전

* 일반열차 일일 운행현황(208회) : 서울역 118, 용산역 90

경의선 이용객을 위하여

- 문산~수색역 구간은 정상 운행 중(일 38회)
- 운행이 중단된 수색~서울역 구간은 셔틀버스 운행(24대)
 - 1시간 1대 운행 중인 열차 운행시간에 맞추어 사고 직후 셔틀버스 16대 운행, 6.4 16:00부터 8대를 추가로 투입
 - * 동 구간은 8개 노선버스(총 210대)가 1일 1,009회 운행중이며, 현재까지는 별다른 교통불편은 없으나 필요시 서울시에서 예비차량 투입(10대)
 - 연계수송 및 대체교통편을 이용하도록 언론·인터넷으로 지속적 홍보 및 열차 안내방송
 - * 3호선(대곡역) 및 6호선(수색역)에서 환승하는데 약 20분 추가소요

< 참고 > : 경의선 사고구간 노선도

